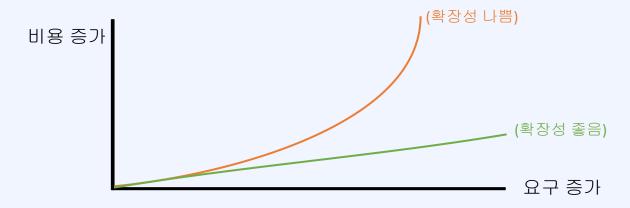


1 확장성과 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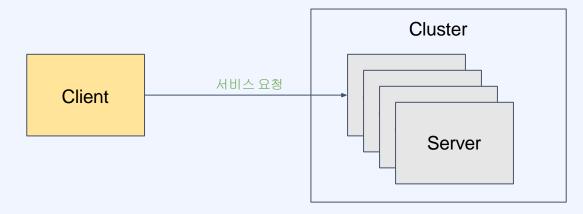
확장성이란?

-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요구사항 수준이 증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
- 주로 규모에 대한 확장성을 뜻함(데이터 크기, 요청 트래픽 등)
- 수직 확장(scale-up)과 수평 확장(scale-out)이 사용됨



수평 확장(scale-out)

- 처리 요소(ex: 서버)를 여러개 두어서 작업을 분산
- 무중단 확장이 가능
-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



분산 시스템에 따라오는 문제

- 부분 장애
- 네트워크실패
- 데이터 동기화
- 로드밸런싱(또는 discovery)
- 개발 및 관리의 복잡성

분산 시스템의 적용

- 분산 시스템으로 인한 trade-off를 판단해서 적합하다면 사용
- 서비스 복잡도와 규모의 증가로 분산은 피할 수 없는 선택
- 분산 시스템의 구현체들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튜닝이 가능하게 옵션이 제공됨
 (즉, 분산 시스템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조절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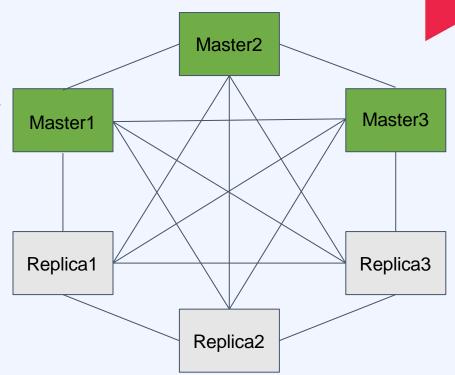


Redis Cluster란?

- Redis Cluster가 제공하는 것
 - ㅇ 여러 노드에 자동적인 데이터 분산
 - 일부 노드의 실패나 통신 단절에도 계속 작동하는 가용성
 - 고성능을 보장하면서 선형 확장성을 제공

Redis Cluster 특징

- full-mesh 구조로 통신
- cluster bus라는 추가 채널(port) 사용
- gossip protocol 사용
- hash slot을 사용한 키 관리
- DB0만 사용 가능
- multi key 명령어가 제한됨
- 클라이언트는 모든 노드에 접속



Sentinel과의 차이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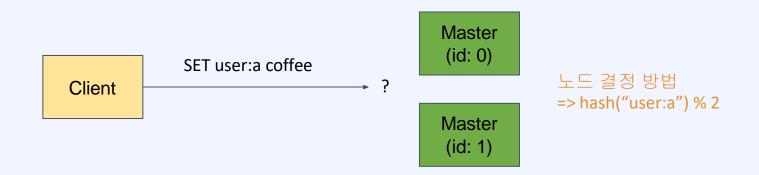
- 클러스터는 데이터 분산(샤딩)을 제공함
- 클러스터는 자동 장애조치를 위한 모니터링 노드(Sentinel)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음
- 클러스터에서는 multi key 오퍼레이션이 제한됨
- Sentinel은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의 시스템에서 HA(고가용성)가 필요할 때 채택



3 데이터 분산과 key 관리

데이터를 분산하는 기준

- 특정 key의 데이터가 어느 노드(shard)에 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
- 보통 분산 시스템에서 해상이 사용됨
- 단순 해싱으로는 노드의 개수가 변할 때 모든 매핑이 새로 계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



데이터 분산과 Key 관리

Hash Slot을 이용한 데이터 분산

- Redis는 16384개의 hash slot으로 key 공간을 나누어 관리
- 각 키는 CRC16 해싱 후 16384로 modulo 연산을 해 각 hash slot에 매핑
- hash slot은 각 노드들에게 나누어 분배됨



Master-0 (slot 0~8191)

Master-1 (slot 8192~16383)

데이터 분산과 Key 관리

3 데이터 분산과 Key 관리

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접근

- 클러스터 노드는 요청이 온 key에 해당하는 노드로 자동 redirect를 해주지 않음
- 클라이언트는 MOVED 에러를 받으면 해당 노드로 다시 요청해야 함

Client SET user:a coffee (slot: 16000) Master-0 (slot 0~8191)

해당 노드가 담당하는 slot이 아니므로 MOVED 에러 받고, 클라이언트는 올바른 노드로 재시도 할 수 있

(error) MOVED 16000 127.0.0.1:7005



클러스터를 사용할 때의 성능

- 클라이언트가 MOVED 에러에 대해 재요청을 해야 하는 문제 => 클라이언트(라이브러리)는 key-node 맵을 캐싱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지 않음.
- 클라이언트는 단일 인스턴스의 Redis를 이용할 때와 같은 성능으로 이용 가능
- 분산 시스템에서 성능은 데이터 일관성(consistency)과 trade-off가 있음
 => Redis Cluster는 고성능의 확장성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
 안정성과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됨.

클러스터의 데이터 일관성

- Redis Cluster는 strong consistency를 제공하지 않음
- 높은 성능을 위해 비동기 복제를 하기 때문



Ack와 복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, 복제가 완료되기 전에 master가 죽으면 데이 터는 유실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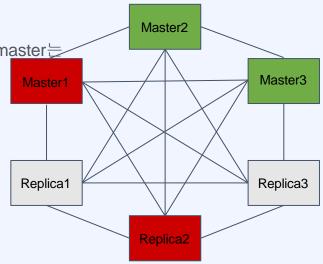
클러스터의 가용성 - auto failover

• 일부 노드(master)가 실패(또는 네트워크 단절)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master가 남아 있고, 사라진 master의 replica들이 있다면 클러스터는 failover되어 가용한 상태가 된다.

• node timeout동안 과반수의 master와 통신하지 못한 m<mark>aster능</mark>

스스로 error state로 빠지고 write 요청을 받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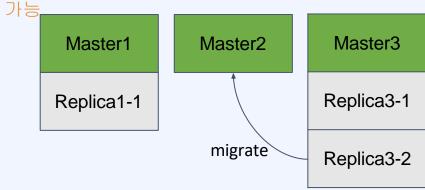
예) master1과 replica2가 죽더라도, 2/3의 master가 남아있고, master1이 커버하던 hash slot은 replica1이 master로 승격되어 커버할 수 있다.



클러스터의 가용성 - replica migration

• replica가 다른 master로 migrate 해서 가용성을 높인다.

예) master3은 replica 1개를 빼도 1개가 남기 때문에 replica3-2는 다른 master로 migrate





5 클러스터의 제약 사항

클러스터에서는 DB0만 사용 가능

- Redis는 한 인스턴스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으며 디폴트는 16
 => 설정) databases 16
- Multi DB는 용도별로 분리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
- 클러스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DB0으로 고정된다.

Multi key operation 사용의 제약

- key들이 각각 다른 노드에 저장되므로 MSET과 같은 multi-key operation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같은 노드 안에 속한 key들에 대해서는 multi-key operation이 가능
- hash tags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key들을 같은 hash slot에 속하게 할 수 있음.
 - => key 값 중 {} 안에 들어간 문자열에 대해서만 해싱을 수행하는 원리

MSET {user:a}:age 20 {user:a}:city seoul

클라이언트 구현의 강제

- 클라이언트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접속해야 함
- 클라이언트는 redirect 기능을 구현해야 함(MOVED 에러의 대응)
- 클라이언트 구현이 잘 된 라이브러리가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음